

수소여객선이 고대 마한의 영산강 뱃길을 되살린다

영암군, 대불산단 친환경 선박 기업과 40억원 규모 여객선 건조 나서

친환경 수소여객선이 영암군 일대, 고대 마한의 영산강 뱃길을 되살린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역특화 친환경 경 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과제로 2027년까지 총 40억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수소여객선 건조에 나선 것. 대불국가산단의 친환경 선박제조기업인 ㈜빈센, (유)이원마린, ㈜마스터블트코리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여객선 건조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선도, 지역 조선산업 체질 개선, 생태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등의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장 17m, 30인승, 25톤 규모의 완전 탄소 무 배출형으로 건조될 여객선에는, ㈜빈센이 독자 개발한 100kW급 수소연료 전지, 70kW 추진모터 2기, 92kWh 배터리 4기가 탑재된다.

이 수소여객선은 영산강을 따라 나뭇도에서 시종면 마한문화공원까지를 오가며, 영산강 옛 뱃길을 복원하고, 마한의 심장 이던 영암 지역의 역사문화유적도 재조명한다. 영암군은 여기에 영산강 수변 생태체험을 더해 '에너지 전환-역사문화관광-생태 체험'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여객선 개발을 위해 ㈜빈센은 수소 레저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객선 추진 시스템 공급과 설계, 기술자문을 맡고, 국산형 수소 선박 기술 고도화도 모색한다. (유)이원마린은 수소연료전지 여객선 건조를 담당하고, ㈜마스터블트코리아는 선박 전기·배터리시스템 통합 관리·제어



플랫폼(SDK·EMS·PMS)을 개발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사업 운영 총괄, 영산강 항로 수심 측량, '친환경 소형선박 협의체' 구성 등에 나선다. 여객선 건조 첫해인 올해는 선박 개념 설계, 유체 해석, 폭발 및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구조물 조립, 해상

시운전, 선박 완성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수소여객선 건조 과정에 대학생 현장실습과 청년기술인 일자리 창출을 연결해, 지역에 관련 기술이 축적되도록 하고, 대불국가산단의 조선업을 친환경·스마트 산업으로 전환하는 모범사례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진도군, '진도홍주 하이볼 페스타' 성황리 개최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재탄생

진도군은 지난 8일(토) 오후 2시에 진도개태마파크 국화축제장에서 '진도홍주 하이볼 페스타'를 관광객들의 큰 호응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 명주인 진도홍주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젊은 세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 공감형 축제'로 추진됐다. (사)진도관광협의회가 주관하고 진행한 이번 축제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주제로 진도홍주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음료를 선보이며, 진도홍주를 새롭게 즐기는 방법을 제시했다. 행사장에는 ▲하이볼 바 ▲디제이(DJ) 공연 ▲벼룩시장 ▲체험활동 등 다양한 참여 공간이 마련됐으며, ▲홍주 칵테일 만들기 ▲홍주 빛깔을 주제로 한 기념 촬영 공간 ▲홍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소개하는 홍주 역사관

등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진도홍주의 붉은빛과 향을 살린 '시그니처 하이볼'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술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논알코올 칵테일)도 함께 제공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다. 축제는 통기타와 국악 공연으로 시작해 전자음악(EDM)과 케이팝(K-POP) 공연으로 이어지며,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진도 출신의 청년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판매장에서는 진도의 특산물로 만든 ▲전복튀김 ▲홍주 초콜릿 ▲전복카츠 등 진도홍주와 어울리는 간식을 판매하고, 빨간색 옷을 착용한 방문객에게는 진도 기념품(굿즈)이 증정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담양 가마골생태공원, 단풍길 따라 걷기 좋은 흙길 산책로 조성

무료 개방으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자연 속 휴식공간 제공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가마골생태공원 입구부터 약 500m 구간에 단풍이 물든 숲길을 따라 걷기 좋은 흙길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한층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이 기대된다. 가마골생태공원은 깊은 계곡과 폭포,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1986년 관광지 지정 이후 휴식과 자연·문화체험 명소로 자리 잡아 매년 수만 명의 찾는 담양의 대표 생태 관광지다.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퇴장 시간은 오후 5시까지다. 음식물 반입과 취사, 야영, 흡연, 쓰레기



투기, 동·식물 포획, 수목 굴취 등은 금지된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10월부터 가마골생

태공원을 전면 무료로 개방해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양시, 2025년 신규직원 멘토링 활동 우수팀 시상

시 주요기관 탐방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시책 개발

광양시는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과 공직관 형성을 위해 추진한 2025년 멘토링 활동을 평가하고, 11월 정례조회에서 최우수·우수·장려 6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광양시 신규직원 멘토링에는 멘토 10명과 멘티 39명 총 49명의 공직자가 10개 팀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개최된 멘토링 결연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매월 1회 '멘토링데이'를 지정해 관내·외 주요 기관과 시설을 탐방하고, 주천도서 독서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였다. 멘토-멘티가 함께한 시책 아이디어 발굴 활동은 시청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과 시책 개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멘토링 활동의 성과를 정량

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심사했다. 우수시책으로는 ▲효과적인 재활용 및 분리배출을 위한 공공영 제작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회복 방안 ▲광양 미디어아트 기반 사계절 관광 활성화 대책 등이 채택됐다. 11월 10일 열린 정례조회에서는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이어진 우수팀의 멘토링 활동 우수 사례 발표는 직원들에게 좋은 자극과 귀감이 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멘토링은 선배 공무원이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성장을 지원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시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더 나은 활동을 이어가 멘토-멘티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함평군, 상수도 현대화로 우수율 95% 달성... 연간 7억 예산 절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우수율을 95%로 대폭 끌어올리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완성했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9억 원(국비 109, 군비 100)을 투입해 ▲상수관망 정비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현대

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인 함평읍·대동면·읍다면·학교면의 경우, 사업 이전 60%대에 머물던 우수율이 90% 이상으로 상승하며, 당초 목표였던 85%를 크게 웃돌며 초과 달성했다. 그 결과 수돗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연간 약 48만 톤의 누수를 방지하고 생산 단

가(1,500원/1톤) 기준 약 7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며 경영 효율화까지 이뤄냈다. 특히,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후속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에 2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총사업비 약 384억 원(국비 50%, 군비 50%)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50km 구간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정밀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을 병행하며, 상수도 관리의 선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후속 사업 선정은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함평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7일 목포대학교 남약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5년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역 내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15개 기업이 제조·의료·복지·사무 등 다양한 업종에서 50여

명의 구직자를 채용하고자 현장 면접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직업상담, 입사지원서 컨설팅, 이력서용 사진 촬영 등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을 찾은 한 구직자는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기업 담당자에게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무안군 제공

"이런 기회가 지역 내 취업으로 연결되어 고향에 뿌리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행사가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